

한의학 고문헌을 통한 오매의 정신의학과 중추신경계 관련 효능 연구

김우영¹ · 전원경^{2*}

The Psychiatric and Central Nervous System Effects of Fructus Mume in Medical Classics

Kim Wu-Young¹ · Jeon Won Kyung^{2*}

¹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Herbal Medicin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Fructus mume(F. mume) has been used as a medicine for thousands of years in East Asia and reported to have effect on cognitive deficits in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We investigated F. mume's effects on psychiatric and central nervous system in medical classics.

Methods : 25 materia medica books and Donguibogam were searched to find psychiatric and central nervous system effects of F. mume. Two Korean Medicine doctors reviewed the effects from the clinical point of view.

Results : 安心(relieve psychiatric discomfort), 令人得睡·治不眠(Treat insomnia), 去煩悶(relieve chest discomfort) were psychiatric effects and 偏枯不仁(hypoesthesia accompanied with hemiplegia) was central nervous system effect of F. mume.

Conclusions :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demonstrate F. mume's effects found in medical classics.

Key Words : Fructus mume, Donguibogam, Materia medica, Psychiatry, Central nervous system

I. 서론

張仲景이 烏梅丸을 蛔厥에 사용한 이래로 한의학에서 오매는 다양한 병증에 사용되어 왔다.¹⁾ 오매는 회충관련 질환, 消渴, 吐逆, 反胃, 癰亂, 肺癰이나 肺痿로 인한 咳嗽 등과 같은 병증에 내복약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惡瘡으로 속살이 보이는 것(惡瘡肉出), 사마귀(痣), 티눈(鷄眼)과 같은 병증에 외용약으로도 이용되어 왔다.^{2, 3)}

한의학에서 사용되어온 오매의 적응증을 바탕으로 현대적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위장관계 질환에 사용되어 왔던 오매의 적응증을 바탕으로 오매, 오미자, 황련으로 조합된 추출물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살모넬라(Salmonella)⁴⁾와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⁵⁾에 항균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의학에서 만성설사와 이질에 사용하던 오매알약(Fructus Mume pill)이 대장염(Colitis)에 실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⁶⁾

최근 한 실험 연구에서는 오매 단일 추출물이 만성적인 뇌 혈류장애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⁷⁾ 이를 기반으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매에는 인지기능증진 외에

* 교신저자 : 전원경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E-mail : wkjeon@kiom.re.kr

투고일 : 2013년 7월 5일 수정일 : 2013년 7월25일

게재일 : 2013년 7월26일

도 또 다른 중추신경계나 정신과와 관련된 효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발굴하여 기전을 연구하고 한의학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의학 고문헌에 기재된 중추신경계나 정신과와 관련된 오매의 적응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오매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한 落葉小喬木인 매화나무(*Prunus mume* SIEB. et ZUCC.)의 미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媒煙에 薰蒸하여 건조한 것이다.⁸⁾

2. 검색 및 분석방법

1) 『東醫寶鑑』을 활용한 오매의 효능에 대한 계통적 연구

종합의서를 통해 오매의 주 적응증을 파악하기 위해 『東醫寶鑑』 기반 계통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東醫寶鑑』의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에는 90개의 門이 존재한다. 上, 下로 나뉘어진 寒門과 癰疽門을 같은 계통으로 보았을 때 88개의 門을 기본 의미 단위로 상정할 수 있다. 기본 의미 단위마다 ‘烏梅’를 검색하여 등장 횟수를 기록하고, 10000자당 ‘烏梅’란 단어가 등장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形如烏梅’, ‘烏梅之狀’과 같이 형태를 비유하기 위해 쓴 단어는 제외하였다.

『東醫寶鑑』의 單方, 『東醫寶鑑』 본문에서의 오매 단독치료 활용례, 『東醫寶鑑』 湯液篇에서 기술한 오매의 효능은 다른 본초와의 혼용없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매만의 효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자료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2) 본초서를 활용한 오매의 효능 연구

中華醫典(簡體版)⁹⁾에 있는 본초서에서 오매의 효능을 검토하였다. 오매의 효능을 독자적인 단락으로 기술하지 않은 『神農本草經』, 『吳普本草

』,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海藥本草』, 『本草圖經』, 『本草衍義』, 『食鹽本草』, 『藥徵』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오매에 대한 구분된 篇名아래 효능을 기술한 『食療本草』, 『湯液本草』, 『本草品彙精要』, 『本草蒙筌』, 『本草綱目』, 『本草易讀』, 『本草新編』, 『本草備要』, 『本經逢原』, 『本草經解』, 『本草從新』, 『本草崇原』, 『神農本草經讀』, 『本草述鈎元』, 『本草思辨錄』, 『本草便讀』, 『本草撮要』, 『本草擇要綱目』, 『得配本草』, 『本草害利』, 『本草分經』, 『雷公炮制藥性解』, 『要藥分劑』, 『藥鑑』을 분석하였다. 오매에 대한 효능을 기술한 24개 본초서의 원문을 숙독하여 정신과적인 효능 혹은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수 있는 효능만을 정리하였다.

정신과적인 혹은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수 있는 효능에 대한 고찰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인과 한방침구과 전문의 1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결 과

1.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오매의 효능

『東醫寶鑑』 전체에서 ‘烏梅’라는 단어는 183번 검색되었다.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에서 비유로 사용된 표현을 제외하고 147개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같은 의미단위의 88개의 門 중에서 39개 門에서 ‘烏梅’가 등장하였다. 門당 출현횟수와 10000자당 ‘烏梅’란 단어가 등장하는 출현 비율(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다(Table 1).

『東醫寶鑑』의 單方, 『東醫寶鑑』 본문에서 오매 단독치료 활용례, 『東醫寶鑑』 湯液篇에서 기술한 오매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Table 2). 『東醫寶鑑』에서 정신과와 관련된 효능은 治不眠, 去煩悶이 제시되었고,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효능은 살펴볼 수 없었다.

Table 1. 『東醫寶鑑』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에 등장하는 오매의 출현횟수와 비율

출현비율 순위	篇	門	10000자당 출현비율	출현횟수
1	雜病	痰瘧	14.99	15
2	雜病	消渴	10.43	7
3	內景	大腸腑	9.00	1
4	雜病	暑	8.77	4
5	雜病	嘔吐	8.12	7
6	雜病	霍亂	7.60	3
7	內景	大便	6.97	17
8	內景	血	6.78	8
9	內景	津液	6.63	4
10	內景	聲音	6.10	2
11	外形	肉	5.81	1
12	內景	肺臟	5.68	1
13	雜病	咳嗽	5.30	12
14	雜病	下	5.17	1
15	內景	夢	4.77	2
16	雜病	火	4.69	6
17	外形	口舌	4.33	3
18	外形	面	4.22	2
19	雜病	積聚	3.95	5
20	內景	蟲	3.77	3
21	雜病	解毒	3.15	2
22	外形	手	2.97	1
23	內景	胞	2.80	3
24	內景	神	2.72	4
25	雜病	吐	2.44	1
26	雜病	天地運氣	2.18	2
27	外形	後陰	1.89	2
28	內景	痰飲	1.86	2
29	外形	胸	1.74	2
30	雜病	婦人	1.73	6
31	內景	精	1.64	1
32	雜病	寒	1.58	6
33	雜病	雜方	1.19	1
34	雜病	小兒	0.80	4
35	雜病	虛勞	0.61	1
36	雜病	內傷	0.50	1
37	雜病	諸瘡	0.43	1
38	雜病	風	0.40	1
39	雜病	癰疽	0.36	1

Table 2. 『東醫寶鑑』의 단방, 본문의 단독활용례, 당액편를 통해 살펴본 오매효능

篇	門	條目	對象	原文	效能
內 景 篇	夢	單方	烏梅	烏梅 治不眠. 作茶飲令得睡.『本草』	治不眠
	津液	單方	烏梅	烏梅 止好唾. 作茶飲之.『本草』	止好唾
	痰飲	單方	烏梅	烏梅 去痰止渴. 可作茶飲.『本草』	去痰止渴
	肺臟	單方	烏梅	烏梅 收肺氣. 作茶飲之.『湯液』	收肺氣
	大腸腑	單方	烏梅	烏梅 澁腸. 作茶飲之.『本草』	澁腸
	大便	單方	烏梅	烏梅 ① 澁腸止痢. ② 血痢, 白梅肉一箇, 合臘茶, 加醋湯沃服之, 一啜而差. ③ 赤痢及久痢, 烏梅水煎, 和蜜服. ④ 休息痢, 合建茶, 乾薑爲丸. 服之大驗.『本草』	澁腸止痢 血痢 赤痢及久痢 休息痢
外 形 篇	面	單方	烏梅肉	烏梅肉 ① 去黑點, 黑痣, 蝕惡肉. 和諸藥以點之.『本草』 ② 面生雀子斑, 取梅肉, 櫻桃枝, 豬牙皂角, 紫背浮萍等分, 爲末, 如常法洗面, 其斑自去.『入門』 ③ 白梅同功.	去黑點黑痣 蝕惡肉 面生雀子斑
	肉	贅肉	烏梅肉	諸瘡凸出, 烏梅肉擣爛作餅, 貼肉上, 立盡極妙.『本草』	諸瘡凸出
	手	代指	烏梅核中仁	手指忽腫痛, 名爲代指, 焰焰煎湯淋漬之. 又取烏梅核中仁爲末, 醋調成膏, 入指漬之, 自愈.『本草』	代指
雜 病 篇	火	單方	烏梅	治骨蒸, 去煩悶. 水煮作茶飲.『本草』	骨蒸 去煩悶
	內傷	單方	烏梅	治食麪不消膨脹. 取肉作丸, 白湯下三十丸.『類聚』	治食麪不消膨脹
	霍亂	單方	烏梅	治霍亂, 煩渴. 水漬, 和蜜飲之妙.『本草』	治霍亂煩渴
	嘔吐	嘔吐治法	烏梅	嘔家聖藥是生薑, 千金之說信矣. 然氣逆作嘔, 生薑散之. 痰水作嘔, 半夏逐之. 生薑於寒證最佳, 若遇熱嘔, 不可無烏梅也.『醫鑑』	熱嘔
	消渴	單方	烏梅	療口乾, 止消渴. 作湯和少蜜, 常啜.『本草』	療口乾 止消渴
	疔瘡	單方	烏梅	主熱瘡煩渴. 煮湯飲.『本草』	主熱瘡煩渴
	解毒	馬毒	烏梅	馬汗入肉, 毒氣引入如紅線, 先以鍼刺瘡口出血, 烏梅和核爛研, 醋調塗之.『綱目』	馬汗入肉, 毒氣引入如紅線
湯 液 篇	果部	梅實	烏梅	性煖, 味酸, 無毒. 去痰, 止吐逆, 止渴, 止痢, 除勞熱骨蒸, 消酒毒. 主傷寒及霍亂燥渴. 去黑痣, 療口乾好唾.『本草』	去痰 止吐逆 止渴 止痢 除勞熱骨蒸 消酒毒 主傷寒及霍亂燥渴 去黑痣 療口乾好唾

Table 3. 24종의 본초서에 기재된 오매의 효능과 작용기전

서적명	정신과적인 효능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효능	작용기전
食療本草	安神		
湯液本草	安心	偏枯不仁	
本草品彙精要	令人得睡	偏枯皮膚麻痺	
本草蒙筌			
本草綱目	安心 令人得睡	偏枯不仁	
藥鑑	安心		
本草易讀			
雷公炮制藥性解		痺不仁	
本草新編			
本草備要			脾肺血分之果
本經逢原			
本草經解	安心	偏枯不仁	
本草從新			血分之果
得配本草			入手足太陰經氣分, 兼入足厥陰經血分
本草崇原	安心	偏枯不仁	
要藥分劑	安心	偏枯不仁	二經血分藥
神農本草經讀	安心	偏枯不仁	烏梅能和肝氣, 養肝血
本草分經			脾肺血分
本草述鉤元		偏不仁	厥陰肝及脾肺二經血分
本草撮要			
本草便讀			專入肝家血分
本草害利			肺脾血分
本草思辨錄	心以安	偏枯不仁(不過血絡凝瘀)	
本草擇要綱目			脾肺二經血分

2. 24종의 본초서를 통한 오매의 효능연구

10종의 본초서에서는 정신과와 관련된 효능인 安心(神), 令人得睡를 제시하였고, 10종의 본초서에서는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효능인 偏枯不仁, 偏枯皮膚麻痺, 痺不仁, 偏不仁을 제시하였다(Table 3). 12종의 의서에서는 정신과나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효능을 제시하지 않았다. 10권의 본초서에서 오매와 氣血의 연관성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9종의 의서에서 血分혹은 肝血과 연결시켜서 오매를 설명하였다.

IV.고 찰

오매의 정신과나 중추신경계 관련 효능에 대한 사전 탐색적 의미에서 한의학 고문헌에서 관련된 효능을 검토하였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고문헌인 『東醫寶鑑』을 바탕으로 한 계통적 연구와 오매를 독자적인 편명으로 기재한 24종 본초서에서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오매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의 88개 의미단위에서 痰癰, 消渴, 大腸腑, 暑, 嘔吐, 霍亂, 大便, 血, 津液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10,000자당 ‘烏梅’의 출현 비율)로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오매가 癰疾, 消渴, 嘔吐, 霍亂과

같은 병증이나 大腸 혹은 大便과 관련된 질환(泄瀉, 痢疾 등)에서 주로 활용되었음을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정신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神門과 夢門에서 驚悸·怔忡, 健忘, 不眠을 치료하는 단방 또는 처방의 구성 약재로서 오매가 등장하고 있으나,¹⁰⁾ 등장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정신과나 중추신경계통 질환에 대한 치료가 오매의 주 적응증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정신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효능으로 10종의 본초서에는 安心(神)과 令人得睡가 등장하고, 『東醫寶鑑』에서는 治不眠과 去煩悶이 등장한다. 安心(神)은 『食療本草』, 『湯液本草』, 『本草綱目』, 『藥鑑』, 『本草經解』, 『本草崇原』, 『要藥分劑』, 『神農本草經讀』, 『本草思辨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令人得睡는 『本草品彙精要』, 『本草綱目』에서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心은 정신, 의식, 사유활동을 관장하는 장부이다.¹¹⁾ 『本草崇原』에서는 “安心者, 謂煩熱除而胸膈不滿, 則心氣亦安.”, 『本草思辨錄』에서는 “氣下熱煩滿除而心以安”이라고 하여 오매의 安心이란 효능이 煩熱이 제거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安心은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일차적인 의미 이외에도,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등의 여러 정신과적 장애에서 동반되는 흥부 불편감, 심계항진과 같은 증상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煩悶은 “마음이 몹시 답답하여 괴로워함”을 의미한다.¹²⁾ 去煩悶은 환자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자각증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화병의 핵심신체증상인¹³⁾ ‘가슴의 답답함’의 치료와 연결될 수 있다. 令人得睡, 治不眠을 통해서도 특정상태의 불면에 대한 오매의 치료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安心(神), 去煩悶, 令人得睡, 治不眠이라는 효능을 한의학적인 검토 없이 ‘오매는 기분장애에 효과가 있다’, ‘오매는 불면에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효능들은 오매의 한의학적인 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능이기 때문이다.

『湯液本草』, 『本草品彙精要』, 『本草綱目』, 『雷

公炮制藥性解』, 『本草經解』, 『本草崇原』, 『要藥分劑』, 『神農本草經讀』, 『本草述鈞元』, 『本草思辨錄』에서는 중추신경계통과 관련될 수 있는 오매의 효능인 偏枯不仁을 제시하고 있다. 偏枯는 서양의학의 hemiplegia를 의미하며,¹⁴⁾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증을 지칭한다.¹⁵⁾ 不仁은 무감각(insensitivity, numbness)을 의미한다.¹⁴⁾ 이는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내는 中風에서 나타나는 임상양상¹⁶⁾과 유사하다. 따라서 오매가 중추신경계통 병증, 특히 중추신경계통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감각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本草思辨錄』에서는 “肢體痛偏枯不仁, 不過血絡凝瘀”라고 하여 오매의 偏枯不仁을 말초 혈관성 병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偏枯不仁에 오매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단지 “口噤者, 以烏梅肉, 和南星, 細辛末, 以中指蘸藥擦牙, 口自開.”^{『直指』}라고 하여 급작스런 중풍으로 입을 열지 않는 경우에 오매를 쓰는 용례가 나온다.¹⁰⁾ 그 원인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의 저자가 오매의 偏枯不仁에 대한 치료효과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神農本草經』에서부터 등장하는 오매의 偏枯不仁에 대한 효능이 당대의 의료인들에게 오매의 효능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실험과 임상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오매와 氣血의 연관성에 대해서 『得配本草』에서는 오매를 氣分, 血分모두와 연관 짓고, 9종의 본초서에서 血分 혹은 肝血과 관련짓고 있다. 『本草經解』에서는 “血枯則偏枯不仁死肌. 味酸益肝血, 血和則潤, 不仁死肌愈也.”, 『神農本草經讀』에서는 “血不灌溉, 則偏枯不仁, 而爲死肌, 烏梅能和肝氣, 養肝血, 所以主之.”라고 하여 偏枯不仁을 血공급 장애로 보고 있으며, 오매로 肝血을 보익해 偏枯不仁을 치료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실험연구에서는 오매의 항혈전효과¹⁷⁾와 항혈소관응집효과¹⁸⁾에 대해 보고된바 있으며, 항혈전치료가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¹⁸⁾ 이를 통해 오매의 작용기전은 한의학적인 血과 주로 관련되고, 오매의 偏枯不仁에 대한 치료 기

전은 補血효과와 항혈전 효과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검색한 한의학 고문헌의 숫자가 2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고문헌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직 학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저자들이 임의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고문헌을 선택하여 검색하였다. 그리고 『神農本草經』에서 나온 梅實의 효능인 ‘主下氣, 除熱煩滿, 安心, 肢體痛, 偏枯不仁死肌, 去青黑志, 惡疾’이 여러 본초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神農本草經』에 나온 효능이 후대 본초서에 등장할 때 단순한 재인용인지, 효능 검증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전 의서에 기재된 오매의 효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기술한 서적은 周岩의 『本草思辨錄』이 있었다.

V. 결 론

오매의 정신과와 중추신경계 관련 효능을 『東醫寶鑑』과 24종의 본초서를 통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한의학 고문헌에서 정신과와 중추신경계 관련 효능이 오매의 주 적응증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2. 오매의 정신과적인 효능으로 安心(神), 令人得睡, 治不眠, 去煩悶이 제시되었다. 여러 정신과적 장애의 흥부 불편감과 같은 동반증상, 불면, ‘답답함’이라는 자각증상 치료와 연관되어 보인다.
3. 오매의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효능은 偏枯不仁, 偏枯皮膚麻痺가 제시되었고 이는 중풍으로 인한 운동·감각신경계장애와 연관되어 보인다.
4. 오매의 작용기전은 주로 血과 연관되며, 오매의 偏枯不仁 치료효과기전은 補血과 현대의 항혈전효과와 연관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VI.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노인성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한 뇌혈관 노화제어기술 개발 (K13220)”과 대덕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오매 추출물을 함유하는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제품 상업화 (G1303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范佩. 試論烏梅丸의臨証运用. J Chin Med, 20-21, 1963.
2. 이인선, 한창현, 이철, 황방연, 정상혁, 이영준 et al. 오매(烏梅)의 다성분동시분석 및 마우스를 이용한 경구 단회투여 급성독성시험.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5(1):37-47, 2011.
3. 팽종기. 「烏梅의 티눈治療」에 關한 文獻考察.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4(1):43-54, 2008.
4. Kwon HA, Kwon YJ, Kwon DY, Lee JH. Evaluation of antibacterial effects of a combination of Coptidis Rhizoma, Mume Fructus, and Schizandrae Fructus against Salmonella. Int J Food Microbiol, 127(1-2):180-183, 2008.
5. Lee JH, Stein BD. Antimicrobial Activity of a Combination of Mume Fructus, Schizandrae Fructus, and Coptidis Rhizoma on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O26, O111, and O157 and Its Effect on Shiga Toxin Releases. Foodborne Pathog Dis, 8(5):643-646, 2011.
6. Liu L, Yuan SF, Sun Y, Long Y, Li YH, Niu YB et al. The possible mechanisms of Fructus Mume Pill in the treatment of colitis induced by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 rats. J Ethnopharmacol,

- 126(3):557-564, 2009.
7. Jeon WK, Ma J, Choi BR, Han SH, Jin Q, Hwang BY et al. Effects of Fructus mume Extract on MAPK and NF- κ B Signaling and the Resultant Improvement in the Cognitive Deficits Induced by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1-13, 2012.
 8.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본초학. 서울, 영림사, pp.615, 2000.
 9. 裘沛然. 中華医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0. 허준. 對譯 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pp.92-997, 2005.
 11. 裴秉哲. 기초한의학. 서울, 정보사, pp.281, 2000.
 12.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pp.1256, 2002.
 13. 이희영, 김종우, 박종훈, 황의완. 화병의 진단 및 변증유형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6(1):1-17, 2005.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WPRO).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PRO, Manila, pp.94-167, 2007.
 1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pp.457, 1999.
 16. 박혜진, 김정현,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조현경. 뇌경색 이후 발생한 위안통의 백호탕 치험 1례 증례보고.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1(2):133-138, 2013.
 17. 박승희, 박금주, 김재기. 오매(Mume Fructus) 추출물의 혈행개선 효과. 대한약학회지, 53(5):298-301, 2009.
 18. Jin WY, Kim SH, Kim HK, Jang DG, Nam JB, Kang YM et al. Antiplatelet and

antithrombotic effect of *Phyllostachys pubescens* leaves and Mume Fructus combination. Integr Med Res, 2(2):70-75, 2013.